# 오대산 사고 실록 환지본처 '청신호'

**국회문체위, 1월 11일 회의열고**
**이광재 의원 발의 결의안 검토**
**다음회의때 처리키로 최종협의**
**문화재청 "대여전시" 검토 입장**
**월정사 콘텐츠 · 인력지원 방안**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환수 당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등이 환수를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와 강원도가 추진 중인 조선왕조실록 · 의궤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월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각회 부회장)이 대표발의한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에 관한 결의안'을 다음 회의 때 통과키로 했다. 다음 회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설 명절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의원 등 국회의원 63명이 발의한 결의안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의 제자리 찾기는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환수운동 끝에 반환받았고,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도 이를 관리할 역량과 준비가 충분하다"며 "오대산을 찾는 수많은 이들이 실록과 의궤를 마주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새길 수 있어야 한다. 돌아온 실록과 의궤는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유산으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 오대산 사고본 관련 보고를 진행한 문화재청의 입장도 '일부 수용'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고에서 문화재청은 "국유문화재의 관리 총괄은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장이며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유 동산문화재를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원본 대여를 통해 당해 문화재를 현지에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월정사 실록 · 의궤전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및 학예 인력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결의안이 이달 중에 채택될 경우 오대산 사고본 실록 · 의궤 환지본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3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만큼 정부 역시 국회 결의안에 따른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정사 관계자는 "오대산 사고본의 일부 대여 전시는 지금도 가능하다. 사중의 기본 원칙은 실록과 의궤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 사고로 돌아오는 것"이라면서 "여야 의원들의 국회 결의안 추진 등 일련의 관심과 변화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월정사도 환지본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불교총지종, 신년하례법회 봉행

**종단50년사 · 종조일대기 봉정**
**우인 정사 "종단 화합에 진력"**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우인정사)은 1월13일 오후1시 서울 강남 역삼동 총지사 서원당에서 '2022 신년하례법회 및 기로진원식'을 봉행했다.〈사진〉 총지종의 기로진원은 만 65세 부터의 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5년간 유예할 수 있는데 이때는 현직 스승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70세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스승에서 퇴임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총지종 종령 법공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창종 반세기를 맞은 오늘의 신년하례는 어느해 보다도 의미있는 법석이라고 생각한다. 종단의 50년은 무엇보다도 생사를 걸고 철두철미하게 수행한 선대 스승님들의 교화와 수행 정진의 역사이며, 스승에 대한 존경과 애종심을 갖고 오직 신심으로 신행 생활을 이어온 교도들의 역사"라며 "종단은 이미 몇 년전부터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종조 선양사업과 기념 대작불사를 추진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종조인 원정 대종사 제114주년 탄신대재를 맞아 종조 진영을 새롭게 모시는 등 종조전 정비를 통해 종조의 사상과 유훈을 널리 받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법회에서는 불교총지종 창종 50주년을 맞아 발간한 〈불교총지종 50년사〉와 종조인 원정대성사의 일대기와 가르침을 담은 〈불공 잘해라〉의 봉정식도 열렸다.

총지종 관계자는 "2년여 만에 발간된 〈불교총지종 50년사〉는 반세기 종단 역사를 되짚어보며 종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밀교 경전 편찬과 의식 복원에 진력하며 한국 밀교의 토태를 마련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를 조명한 〈불공 잘해라〉 역시 종단 교화와 제도의 길을 새롭게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 책은 불교총지종 사부대중 1500여명이 설판재자로 동참해 2억원 가까운 희사금이 모연돼 제작됐으며, 이후에는 종조 선양 및 종단 발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일 기자

# 전통사찰보존지 범위 확대될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전통사찰법' 개정안 발의**

전통사찰보존지 범위에 사찰 운영을 위한 토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사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1월 12일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했다.

노웅래 의원은 "1천만 불교인의 수양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보호함으로써 종교의 자유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송지희 기자

# 전국 사찰 동시 타종으로 승려대회 시작

**범대책위, 1월 13일 6차 회의**
**"승가위의 갖춰 여법히" 강조**
**대중 참회진언 · 석가모니정근**
**행진 · 차량 시위 등은 재검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자행돼 온 종교편향과 차별을 저지하고 한국불교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열리는 전국승려대회가 1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이번 전국승려대회는 조계종뿐 아니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 한국불교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전국에서 스님 5000여 명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는 1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승려대회 봉행 구성과 식순, 예산 등 주요내용을 재점검했다.

회의에 앞서 범대책위원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승려대회가 열리게 된 당위성을 알리고 한국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종단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승려대회가 여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승가의 위의를 훼손하지 않고 봉행할 것을 강조한 원행 스님은 "큰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

전국승려대회는 1월 21일 오후 2시, 전국 사찰이 명종과 명고를 동시 타종하면서 시작된다. 서울 조계사에서는 육바라밀 의미가 담긴 여섯 번의 타종을 진행키로 했다. 경내 앞마당에 집결한 5000여 대중들의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후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부처님 전에 이날의 법석을 알리는 고불문을 낭독할 계획이다. 이어 전 대중이 합장하며 참회진언을 독송한다.

이후에는 종교편향 불교왜곡 영상 시청, 봉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인 총무부장 삼혜 스님의 경과보고, 봉행위원장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봉행사, 종정진제 대종사의 교시가 이어진다.

대회연설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함께 종단협의회, 전국선원수좌회가 맡는다. 외호대중 대표로 중앙신도회장이 연대사를 발표하며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이 결의문을 낭독할 계획이다. 대중들의 참회가 담긴 석가모니불 정근 후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의 발원문과 사홍서원으로 본 행사는 마무리된다. 본 행사 후에는 자유발언과 행진, 차량 시위 등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질서유지를 위해 다시 검토키로 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은 "신년하례법회에서 종정예하와 원로스님들이 여법한 진행과 위법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 범위 내 행사를 주문하셨다"며 "실천행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사회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국승려대회의 대변인은 기획실장 법원 스님이 겸직하는 것으로 했다. 지난 5차 회의 때 배포를 결정한 '종교편향 · 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라는 문안이 담긴 현수막은 전국 2200여 사찰에, 종단협에는 320부 발송된 상태다.

범대책위는 1월 19일 오후 3시, 7차 회의를 통해 전국승려대회 주요 내용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임은호 기자

# "세종시민 문화향유 위해 힘쓰자"

**조계종 · 세종시, 1월 13일 MOU**
**한국불교문화체험관 활성화 협력**



조계종(총무원장 원행)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원행 스님과 이춘희 시장은 1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업무협약식'을 갖고 세종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계종과 세종시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서로 세종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내용물을 개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역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종시민의 문화향유와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체험관 건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세종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체험관을 운영할 책임자인 비구니 스님을 선정해 관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라며 "시와 종단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좋은 터에 짜임새 있는 건물이 들어서 시민으로서 기분이 좋다"며 "마지막까지 면밀하게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며 "세종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75-1전 일원에 건립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명상과 사찰음식, 미술, 음악, 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495㎡(약 1662평) 규모로 상설 · 기획전시관과 공연시설, 시민들을 위한 체험 · 교육시설 등이 마련된다. 2017년 5월 불사를 시작해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임은호 기자


靈鷲山雲門寺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 복지 제도와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_ 2022년 봄 수계예정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모집기간 _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신함)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재학 중 입학금면제 · 병원비지원 ·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 · 졸업여행비지원
3)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율주 일진 · 학장 진광 · 주지 운산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대학원 2022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_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_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전형방법 _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신함)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습의사
4) 해외 연수비지원 5)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율주 일진 · 주지 운산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정기실사 결과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www.unmunsa.or.kr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